

「괴롭힘」못견뎌 교실殺人

창녕

고교3년생 심부름시키고 자주때린 친구 칼로 찔러

“책뚝게 빌려왔다... 두고보자”에 공포못이겨 범행

【창녕=姜正勳】특정 동 (18)의 등과 가슴을 과도로 학살을 갈보고 놀림의 대상으로 만들어 괴롭히는 현상이 국내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교3년생이 평소 자신을 괴롭혔던 학남을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서 살해했다.

18일 오후 1시20분경 경남창녕군 남지읍 대신동 N고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이 학남(車均)은 (17)이 동원인 김성호(金成浩)를 (18)의 등과 가슴을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교실에는 30여명의 급우들이 점심을 먹거나 휴식중이었으나 車均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숨진 김성호(金成浩) 이날 3교시가 끝난 다음 車均에게 ‘앞반에 가서 교과서를 빌려오라’고 시킨 뒤 심부름이 늦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몇차례 쥐어박았다. 이어 “다음 시간에 보자”는 김성호의 말에 “공포감”

설을 해 車均의 자존심이 저지 않게 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명은 N중학교 3년과 고교2, 3학년을 한반에서 지낸 사

이들 두명은 N중학교 3년과 고교2, 3학년을 한반에서 지낸 사

심사간에 다시 때린 듯 조사중이다.

【부산=趙鏞輝】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오후 금(46·여·일반사회교육학과) 이상자의 우발적 소행 등

40대 女교수 등산길 피살

「원한殺人」집중수사

경남창녕군 남지읍 대신동 N고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이 학남(車均)은 (17)이 동원인 김성호(金成浩)를 (18)의 등과 가슴을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교실에는 30여명의 급우들이 점심을 먹거나 휴식중이었으나 車均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숨진 김성호(金成浩) 이날 3교시가 끝난 다음 車均에게 ‘앞반에 가서 교과서를 빌려오라’고 시킨 뒤 심부름이 늦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몇차례 쥐어박았다. 이어 “다음 시간에 보자”는 김성호의 말에 “공포감”

【부산=趙鏞輝】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오후 금(46·여·일반사회교육학과) 이상자의 우발적 소행 등